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거론

靑 주례회동서 ‘국정운영에 부담’ 발언…“검찰 집단행동 부적절” 비판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낡은 것 결별해야 미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사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

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동반 사퇴가 난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데다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추 장관을 경질시키는 문제도 쉽지 않아 동반 사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추 장관도 갈등 국면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의를 표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뚜렷한 입장보다는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모든 공직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

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옛새 간의 침묵을 깨고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어 정 총리가 거론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임기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강제 사퇴시키기도 어렵고 또 추 장관을 동반 사퇴시키는 문제도 결코 쉽지 않다”며 “추-윤 동반 사퇴 문제는 내달 2일 징계위의 결정이 이뤄진 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국정원장 국회 출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근 1차장, 박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권 선호도 2위 부상

리얼미터 19.8%…이낙연 20.6%·이재명 19.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났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구·경북(9.6%p ↑), 서울(3.9%p ↑), 50대(4.7%p ↑), 보수(3.5%p ↑), 중도(2.9%p ↑)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이낙연 대표는 20.6%, 이재명 경기지사는 19.4%로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다. 전월과 비교해 이 대표는 0.9%포인트, 이 지사는 2.1%포인트 하락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 대표는 리얼미터 기준 대선주자 선호도가 7개월째 하락세다. 권역별로는

서울(17.9%)에서 8.3%포인트가 하락하며 10%대로 내려앉았다. 광주·전라(43.3%)에서도 2.5%포인트 하락했다. 대신 인천·경기, 부울·경에서는 각각 3.3%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사의 경우 대구·경북(5.6%p ↓), 부울경(4.6%p ↓), 60대(3.0%p ↓), 보수(4.4%p ↓), 진보(2.1%p ↓)에서 하락했다. 그밖에 대선주자 선호도는 홍준표 의원(5.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5%), 유승민 전 의원(3.3%), 추미애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0%) 순이었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48.1%, 범보수·야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41.7%로, 양 진영간 격차는 6.4%포인트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與, 국정원법 단독 처리

대공수사권 이관 등…9일 본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정보위원회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고,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

김태년 원내대표 “예산안 내일까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연휴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여당인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 피해 3차 민생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며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 명분의 예방백신 접종 물량이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광주·전남 조직위원장 공모

비례 1~20위 25% 호남인사 추진…선거구 10곳 다음주 면접

국민의힘이 불모지인 광주·전남지역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직위원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 1~20위 중 25%를 호남 인사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임 지역구 조직위원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비례대표의 고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도 예상된다. 지난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광주 동남갑, 동남을, 서구를, 북구를, 광산갑, 광산을, 전남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등 광주·전남지역 10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전북 각 6곳, 대전과 충북 각 1곳씩 모두 30개 선

거구 조직위원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이어 경기 2곳의 조직위원장도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10개 지역 조직위원장 접수는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 지원자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주 중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한 뒤 당협위원장 적임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 불모지인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당협위원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례대표 상위 25%를 호남 인사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협위원장 공모도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윤석열 최고 제4호

순천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한지계획 인가에 따른 한지에너지 지정 공람 및 효력 발생일 공고

1. 도시개발법 제29조에 의거 한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20.11.25. 순천시로부터 「순천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 한지계획의 인가」를 받았는 바, 인가된 한지계획으로 한지 예정지가 지정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5조 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기간 내에 공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3항에 의거 한지에너지의 지정 및 효력 발생일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고합니다. 본 공고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는 바, 만일 주소 불명 및 부재·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용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행방식: 한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13번지 일원
- 사업면적: 438,590㎡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2020.05.01.)~ 한지처분일 까지

나. 한지에너지 지정

- 1.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 내용에 따름
- 2. 한지계획: 한지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름
- 3. 한지에너지 지정일: 2020.12.02.
- 4. 효력발생일
 - ① 한지가 지정된 토지: 한지에너지 지정일
 - ② 근접청산 대상 토지: 한지에너지 지정일로부터 30일 후
 - 5. 효력발생기간: 한지에너지 지정 효력 발생일~한지처분 공고일

다. 한지에너지 지정을 위한 공람

- 1. 공람기간: 2020.12.02.(수요일) ~ 2020.12.15.(화요일): 14일간
- 2. 공람장소: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전화 061-7271-2779]
- 3. 공람대상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4. 공람 서류 및 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라. 한지에너지 지정 효력 발생 시 효력

- 1.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자연사 등)는 한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한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한지 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66조)
- 2. 한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인·자연사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 날부터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37조)

마. 과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

- 1. 부족면적에 대해서는 한지처분 시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금액으로 청산금을 산정한 후 교부합니다. 다만 아래 2호, 3호의 사전 청산금은 청산시점에서 평가한 평균금액으로 징수 또는 교부합니다.
- 2. 한지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다면적이 있는 토지는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사전 청산(청산금 납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부족면적이 있는 토지(금전청산 대상 토지 포함)는 조합의 제비지 매각 등으로 청산 가능 사정비 확보시 사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 한지에너지 증명원 발급

- 1. 「한지에너지증명원」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토지의 매매나 대출시, 상대방이 「한지에너지증명원」이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한지에너지증명원」을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 「한지에너지증명원」은 공사 준공 후, 한지처분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천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고흥군 공고 제2020-1,925호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공람공고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건립을 위한 군 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농지법」제31조의 2, 및 「농지법 시행령」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일
고 흥 군 수

1. 농업보호구역 해제(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가. 위 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361번지 일원
나. 해제사유: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 사업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다. 해제내역: 농업보호구역 9,864㎡ → 농업보호구역액 9,864㎡

2. 공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관제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비치)
4. 공람장소: 고흥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5. 관제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니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농업축산과 ☎ 061-83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안내

12월1일(화)
▲광주 기고파트레킹 12월1일(화) 논산 탐정호 · 줄리다리 · 소풍길 탐방,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분, 월드컴북문 배풍건너편 07:30, 한국병원앞 07:40, 교원공제앞 07:50, 문예회관후문 시내버스승장 08:00 ※ 다음카페 광주 기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12월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5일(토) 여

수 개도 천재봉 · 봉황산, 봉선동 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앞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820 2284

12월6일(일)
▲광주서산악회 12월6일(일) 포항 호미반도 해파랑길 15코스,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앞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서정기(500417~XXXXXX)
- 최후추소: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1동 704호 (문수동, 문수(연아비트))
- 등락기준지: 전남 여수시 교동 635번지

피상속인 망 서정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제신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단561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1일

- 상속인: 1. 이선호(561228~XXXXXX)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1동 704호 (문수동, 문수(연아비트))
- 2. 서현상(860113~XXXXXX) 장원지 의창구 중동로 33, 203동 4203호 (중동,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 신고기간: 2020. 12. 1. ~ 2021. 2. 9.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2. 서현상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2020년 11월 30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리진테크(이하"갑")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브리스(이하"을")와 분할합병("갑")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권리와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외계산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01일

갑 주식회사 리진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30번길 77(우산동) 대표이사 김 유우

을 주식회사 브리스
경기도 광명시 새남동길로 67, 광명역역사타운빌 제1호1110호(일직동) 대표이사 이 현수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길 43번지 한국아텔리움5차 아파트 102동 501호
- 계약자: 이 수 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12월 1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 光州日報 ·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